



황전리마을 사람들이 화엄사 뒷산에 조성된 자연 차나무밭에서 차잎을 따고 있다.

화엄사는 국보 4점, 보물 5점, 천연기념물 1점, 지방문화재 2점이 있는 조계종 17교구 본사이다. 경내에는 웅장한 아름다움으로 눈길을 끄는 각황전(국보67호)과 20여 동 부속 가람이 배치되어 있다. 일주문을 지나 약 30도로 꺾어서 북동쪽으로 들어 가면 금강역사, 문수, 보현의 상을 안치한 천왕문에 다다른다. 금강문 서쪽 방향으로 빗겨 놓은 천왕문 배치가 독특하다.

오후 햇살을 등에 지고 아랫마을 황전리 마을회관에서 곧 깊은 산자락 뒀은 사람들을 만났다. 150호에 400여 명이 사는 동네는 산골 마을이라기보다 도시에 가까운 마을처럼 고실길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가지런하게 쌓은 돌담 사이로 산수유 꽃이 빼꼼히 낫선 나그네에게 인사를 건넸다. 황전리는 다른 마을과 다르게 개 짖는 소리가 없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지막한 돌담처럼 오순도순 사는 모양이다.

화엄사 농사를 지어주며 살았다는 한밭남씨는 볼자가 많아 교회가 들어서지 않는 마을이라고 소개했다. 화엄사 이웃으로 사는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오신날이면 일손을 놓고 절집 음식을 만들어 손님을 대접하는 불심을 지닌 듯 했다. 마을에 신도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사를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절집을 돕는다. "옛날에는 화엄사가 가난했어. 먹을 것이 없어서 스님들이 춘궁기에 속 죽도 쑤어먹었습니다. 해마다 절 풍사를 지어 수(갈미)

를 받아 절집에 들어 놓곤 했는데, 좀더 많은 소출을 내려고 노력하며 산 것이 15년이구먼요. 지금은 농사법이 개발되어 흉년도 없고 소출이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선심으로 살아가는 황전마을에도 아픔은 있었다. 농지개발법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황전마을 소재인들에게 화엄사 땅을 불하해 주었다. 소작인들이 몇 년간 상환을 하고 등기를 했지만, 절집이 어렵다는 바람에 개인에게 나눠준 땅을 도로 절집에 돌려줬었다. 국보 사찰인 화엄사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김용섭 이장님이 들려주었다. 전답을 잃었지만 억울함은 없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부처님법 청량수를 먹고 사는 사람다운 말을 했다.

화엄사에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사철 푸르게 자라는 차나무들이 있다. 절집 뒷산에 조성된 자연 차나무 밭은 아랫마을 사람들 품을 사서 채취를 한다. 산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뱀에 물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후덕하게 생긴 여우순씨는 요즘은 자연을 벗 삼아 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신문사 양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소. 산돼지 잡으라고 말 좀 해주소. 사람이 중허요, 산돼지가 중허요. 산 아래 밭에는 감자 구구마도 심어 먹을 수가 없어요. 산돼지가 내려와서 다 파먹어서요."

행정당국으로부터 포획기간 발표가 있지만 염총

# 서로 마음 소통하며 미래 설계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 7 지리산 화엄사

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인자라 개체 수는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다. 버섯을 따러 갈 때도 집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득해졌다. 저녁 해는 급하게 산등성이를 내려와 꾸불꾸불한 능선을 그려 놓는다. 마음을 열어 놓은 사람들이 저녁노을 같은 이야기를 쏟아 놓으며 나뉠 뉘들었다.

“우리 마을은 구례군 8개 읍면 중 가장 소득이 높은 부자마을입니다. 절집 아랫마을이라서 한국전쟁 이전에는 화전민이 사는 빈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이 자연에서 소득을 얻기 시작했지요. 가을철에 싸리버섯, 꽃버섯, 능이버섯, 마지개버섯, 송이버섯 등을 채취해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봄철에는 고로쇠, 거자수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도시에 팝니다. 황금 밭이라는 뜻을 지닌 황전리 마을 이름 덕을 토틀히 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장님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있다며 놀이터로 안내 했다. “이것이 당그레 바위(국석)을 굽어모으는 농기구입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 길을 넓히면서 땅속에 묻어 버렸던 것을 발굴해 다시 복원 했습니다. 그리고 ‘당그레 거리’라는 길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지요. 아마도 부자 마을이 된 것은 당그레 바위가 마을의 안녕을 빌어 주었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황전리 사람들은 마음 나누기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화엄사 뒷산에서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은 적당량을 화엄사에 내놓고, 국립공원관리소에도 나눠준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이장님이 마을 발전 청사진을 꺼내놓았다. “구례는 지리산의 제일 큰 관문입니다. 그런데 천왕봉, 노고단, 성삼재에 겨우 삼백대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요. 대부분 관광객들이 차를 이용하여 산에 오르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동물들의 안전처를 빼앗는 격입니다. 케이블카를 놓자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황전리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통하며 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듯했다.

마을뿐만 아니라 화엄사(주지) 종심도 폭넓은 소통을 꿈꾸고 있다. 4월 2일부터 핀란드 헬싱키 국립 문화박물관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전통불교’라는 주제를 내걸고 전시회를 연다. 앞으로 포교의 불모지인 유럽지역 전방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의 정기가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돕는 것 아닐까.



화엄사.



화엄사 경내에 활짝핀 매화.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황전리 마을 전경.

### 마을 지킴이 오영수 개발위원장



그는 마을 입구 정자나무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젊은 날 화엄사 종무소에 근무하기도 했던 그는 정도의 세계와는 인연이 깊다. 한 때 지리산의 도법관 지킴이로 산감 임무를 맡아 보면서, 법에 어긋나면 마을 사람들도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려서 처벌했었다. 청렴함을 인정받은 그는 18년 동안 인정을 받았고, 가난해서 하대 받던 마을을 부자 마을

### 청렴함과 봉사정신으로 부자 마을 만드는데 앞장

로 만들었다. 마을이 우수 민박촌으로 지정받아 농의 소득이 높아지자, 가난의 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행정에 어두워 찾지 못하는 권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주고, 씨족 사회의 잔재가 남아있어 김찌와 박찌가 아니면 이장을 못 하던 불문율을 깨트렸다. 처음으로 해조 오씨인 그가 이장을 맡게 되자 인구가 많은 씨족의 이기주의가 혼들어 댔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고, 마을에 특이 되는 것과 타협하며 공공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군청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힘들었지만, 지내 놓고 보니까 뿌듯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이 자연녹지 지역이라 세금에 불이익 당하는 것이 많았는데 주택, 상가 지역으로 행정 변경을 해서 세금을 줄여 준 것입니다.” 그가 이장직을 넘겨 줄 때 마을 사람들은 감사패와 공로패로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했다. 그의 봉사 정신은 노인들에게 무료 료로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받도록 추천하고 있다.

# 타태영가 천도를 위한 4대재를 시작합니다...



www.hwagyesa.org

불기 2551(2007)년 4월 1일(일) 오전 10시

※ 입재법문 : 도락산 해인스님(제주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 4월 1일 입재 후 회향 전까지 기도 일정표

시 간	주 관	내 용
04:00-06:00	현우스님	예불 및 지정기도
06:00-08:00	묘봉스님	원각경 보안보살장
08:00-10:00	우성스님	이미타경
10:00-12:30	수경스님(주지)	예불 및 장수멸죄경
12:30-14:00	우성스님	이미타경
14:00-16:00	수암스님	지장경
16:00-18:00	중현스님	금강경
18:00-19:00	대중스님	예불
19:00-21:00	수경스님(주지)	장수멸죄경

### ※ 회향 및 보살계 수계식

- 회향 : 불기 2551(2007)년 5월 19일(월) 오전 10시
- 보살계 수계식
  - 전계사 : 송원 설정근스님(덕숭총림 수좌, 화계사 회주)
  - 교수사 : 도락산 해인스님(제주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 갈마사 : 정약 태응근스님(전 조계사, 영축총림 주지)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안락하기를 원한다. 자신에게 그러하듯 이 이치를 만 생명에 적용할 것인 즉,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법구경)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순회 살생을 하지 않는 것만이 ‘불살생’이 아니라, 공포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불살생의 계율에 어긋난다는 것을 새겨들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어머니의 태에서 버림을 받은 아기영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있었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는 낙태에 대해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 왔습니다. 설사 죄의식을 느낀다 해도 그건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습니다. 우리는 이 천도 재를 모든 사회적 폭력이나 생명 경시 풍조를 바로 잡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 타태영가 천도는 자기 정화를 위한 수행입니다

타태영가 천도가 자기 정화를 위한 수행의 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식에 그치고 맙니다. 어느 정도 죄의식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었지요. 하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참회에서 발원으로, 발원에서 불살생의 실천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혹은 이 절 저 절로 떠돌면서 천도를 하는 단순 의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윤회의 사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낙태를 방조해 왔습니다. 낙태에 대한 도덕적 부담은 철저히 개인이 짊어준 채 속살이만 해 왔습니다. 이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부처님 앞에서도 남김없이 허물을 털어 놓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회의 눈물을 생명을 살리는 거름으로 쓰십시오.

### 타태영가 천도는 불살생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는 이성적 통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최고의 자살률, 사회적 양극화와 비인간적 경쟁 체제, 환경파괴의 문제 등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의감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만 생명의 뿌리는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동맹이 하나 풀 한 포기도 부처님의 몸이라고 여깁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 옹호의 사상은 없습니다. 그것의 실천을 위해 불살생을 다짐 하자는 것이고, 그 약속의 출발점으로 부주교훈으로 떠돌고 있을 타태영가를 천도하자는 것입니다.

### 타태영가 천도는 돌봄의 문화와 '생명 감수성'의 고양입니다

지금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 '빈 그릇 운동'을 계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지구촌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 감수성이란 것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가너린 것에 대한 가없는 연민, 약자에 대한 배려, 보잘 것 없는 꽃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가를 위해 천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타태영가 천도재를 시작하는 진정한 의미는 다테가 필요 없는 마음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가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반생명 문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만 생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불기 2551(2007)년 4월

##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화계사 주지 수경 합장

## 대한불교 三角山華溪寺

자세한 사항은 화계사 종무소 문의하십시오. 전화: 02-902-2663 전승: 02-990-1865